

‘미나리’ 이후 한예리가 선택한 tvN 수목드라마 ‘홀타운’

“자극적이지만 가족들과 추리해 보세요”

대본 읽자마자 눈길 사로잡아 가스 테러범 여동생으로 열연 “가해자 가족 삶 상상하며 연기”

“아카데미 무대를 밟은 건 꿈이 아니었을까요?”

배우 한예리(37)는 주연 영화 ‘미나리’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레드카펫을 밟은 4월26일을 그렇게 기억했다. 그는 당시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대선배’ 윤여정과 세계 각국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뿐만이 아니다. 영국 아카데미와 미국 선댄스 등 해외 유력 영화제와 시상식을 휩쓸며 영광의 순간을 만끽했다.

그로부터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한예리에게 ‘미나리’의 성과는 이미 저 멀리 잊힌 듯하다. 그는 “워낙 꿈같은 일이어서 오히려 현실감이 별로 안 느껴진다”며 수줍게 웃었다. ‘미나리’ 이후 행보에 국내외 관심이 쏟아질 때 tvN 새 수목드라마 ‘홀타운’을 신작으로 선택한 이유도 특별하지 않았다. “나조차 궁금하게 만드는 대본이 시청자에게도 얼마나 재미있게 다가갈까 싶어서”였다.

● “크게 달라진 점? 없어요!”

22일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홀타운’은 한예리가 ‘미나리’를 마치고 새로 선보이는 주연 드라마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



영화 ‘미나리’로 세계적 시선을 받은 한예리가 22일부터 선보이는 tvN 새 수목드라마 ‘홀타운’으로 돌아온다. 미스터리한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의 “다음 구성이 궁금할 것”이라며 한껏 자부했다. 사진제공 | tvN

다. 15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나선 한예리는 이에 의연한 마음을 드러냈다.

“글로벌 행보를 견고 있다고 하기에 해외 작품이 ‘미나리’ 하나뿐이라 민망해요. 하하하! 이후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차기작을 선택하는 것에도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고요. ‘홀타운’ 대본을 읽자마자 눈길을 확 잡아끄는 내용이 마음에 들어 출연을 결정하는 게 오히려 쉬

웠답니다.”

그는 극중 도심에서 가스 테러를 일으키고 복역 중인 테러범 엄태구의 동생 조정현을 연기한다. 살인범의 가족으로 낙인찍혀 함께 살아가는 도중 엄태구의 딸인 이레가 실종되면서 미스터리한 사건에 휘어든다. 엄태구로부터 아내를 잃은 형사 유재명과 따르며 같이 사건을 파헤쳐간다.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의 만남도

생경하고, 스릴러 드라마 특유의 분위기도 강해요. 조정현이란 캐릭터를 그 모든 요소에 잘 어울리도록 사실적으로 그려야 했죠.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캐릭터가 가해자 가족으로서 어떤 삶을 감내했는지 대본이 닳도록 읽으면서 상상했어요.”

● “가족들 모여앉아 보는 드라마 되길”

유재명을 비롯해 엄태구, 이레 등 동료들이 저마다 이야기를 그리는 전개 방식도 새롭다. 한예리는 제작발표회에서 이들을 둘러보며 “자주 만나지 못해서 엄청 반갑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배우들이 서로 마주칠 일이 없는 촬영현장은 처음이에요. 유재명 선배님과 우연히 만나면 서로 ‘고생하신다’며 응원하기 바빠요. 조카로 나오는 이레는 정말 에너지가 넘쳐요. 같이 촬영하면 기분이 좋죠. 올해 15세인 이레를 보면서 ‘난 저 때 뭘 했지?’ 싶더라고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첫 방송을 하는 만큼, 한예리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앉아 지켜봐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남겼다.

“가스 테러, 연쇄살인 등 소재가 자칫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스쳐 지나가는 ‘점’일 뿐이에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재미를 담은 ‘홀타운’ 첫 화와 함께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유재명 기자 yjh0304@donga.com

원픽 오늘 뭐 입지?



여름과 가을사이, 흰색 티셔츠에 니트 베스트 하나만 걸쳐 입으면 패션이 완성된다. 사진출처 | 수행 SNS

점심편 덥고 아침저녁 쌀쌀한 간절기 수영·제니처럼 ‘니트 베스트’ 입어봐

어느새 가을인가 싶더니, 웬걸! 따가운 햇볕은 아직 여름이다.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여전히 덥고, 간절기! 옷 입기, 참 애매하다.

이럴 땐 스타들의 SNS를 참고하자. 소녀시대의 수영, 블랙핑크의 제니 등 평소 옷 잘 입기로 유명한 이들에게는 공통된 아이템이 있다. 바로 니트 베스트이다.

반팔 티셔츠나 얇은 셔츠 위에 가볍게 걸쳐 입으면 멋스러운 데일리룩이 완성된다. 니트 베스트의 무늬가 화려하면 안에 받쳐 입는 티셔츠는 화이트나 무채색 계열이 좋다. 니트 베스트는 어떤 스타일과 매치해도 다 잘 어울린다는 장점이 있다. 원피츠 위에 입으면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하고, 블랙핑크의 로제처럼 플리츠스커트 위에 매치해 입으면 편안하면서도 발랄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JYP 자매 그룹’ 트와이스·있지, 美·日시장 본격 공략

트와이스, 내달 1일 첫 영어 싱글 발표
있지는 24일 일본 데뷔·정규앨범 공개

‘빅히트 형제그룹’인 방탄소년단(BTS)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가 해외에서 쌓아온 흥행을 이어간다면 ‘JYP 자매그룹’ 트와이스와 있지도 미국과 일본 시장을 본격 공략하고 나섰다. 각각 3·4세대 케이팝 대표 주자들로 활동 영역을 전 세계로 넓히며 팬덤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포석을 마련한다.

일본 등 아시아를 점령하고 미국에서 팬덤을 쌓고 있는 트와이스는 다음 달 1일 오

후 1시(미국 동부시간 0시) 첫 영어 싱글 ‘더 필즈(The Feels)’를 발표한다. 데뷔 이후 처음으로 내놓는 영어 싱글로, 북미 음악시장을 겨냥한다. 빠른 템포의 디스코 장르와 하이틴 콘셉트를 내세웠다. 앞서 ‘모어 앤드 모어(MORE & MORE)’, ‘아이 캔트 스톱 미(I CAN’T STOP ME)’ 등 한국 앨범 수록곡을 영어 버전으로 내놓은 적은 있지만, 영어 신곡은 처음이다.

트와이스는 지난해 미국 유니버시티뮤직 산하 레이블인 리퍼블릭 레코즈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알렸다. 이후 영어 번안곡을 잇달아 내놓고 미국 유명 토크쇼 ‘엘런 디제너러스 쇼’ 등에 출연했

다.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도 200위로 진입한 뒤 72위, 다시 6위까지 점차 순위를 올렸다.

‘동생그룹’인 있지도 24일 일본에서 정식으로 데뷔한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미국 동부시간 0시) 첫 번째 정규 앨범 ‘크레이지 러브(CRAZY IN LOVE)’를 전 세계 동시 발매한다. 앞서 이달 초 ‘달라달라’, ‘아이씨’, ‘워너비’, ‘낫 사이’, ‘파피아 인 더 모닝’ 등 히트곡을 담은 일본 디지털 앨범 ‘왓츠 있지(WHAT’S ITZY)’를 선보이고 현지 공식 사이트도 열었다. 이미 ‘언니’ 트와이스가 현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만큼 ‘동생’ 있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있지



트와이스

내 몸에 선물하는 완벽한 편안함~ 청바지에 중독되다!
멋과 편안함을 동시에 청바지 1 + 1 49,800원



고무줄은 아니지만 고무줄 같은 편안함
뒤틀림개선으로 힘입효과까지!

중년의 체형을 고려하여 밑위길이가 적당하다. 착용감이 편안하고 활동성이 뛰어나며 워싱이나 장식이 과하지 않도록 제작되었다. 일자형으로 다리가 길어 보이고 어떠한 체형에도 잘 어울리며 편안함과 핏스러움을 동시에 표현하기에 좋은 청바지이다. 패션 트렌드에 꼭 빠지지 않는 아이템인 청바지는 무난한 디자인으로 야외 활동시 평상복으로 즐겨 입을 수 있는 제품이다.

사이즈

30, 32, 34, 36, 38, 40

청바지 1+1 ₩49,800

(택배비 3,000원 구매자 부담)

입금계좌 :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 이선희센스스포츠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카드결제 가능



약기모 집업 티셔츠로 쌀쌀한 날씨에 든든하게~
기능성 기모 집업티셔츠 3종 39,800원



보온성·방풍성·실용성·패션성을 겸비한 기모 집업 티셔츠는 기온이 낮은 날씨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이다. 보온성이 탁월한 약기모 안감 기술을 입힌 집업 티셔츠는 가을철 일상생활이나 등산·낚시·골프·사이클·스포츠 레저 활동시 적합한 제품으로 입는 순간부터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온몸으로 느낄 것이다. 일상복 및 외출복으로 손색이 없으며 가을철 냉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준다. 100% 국내 원단으로 믿고 입을 수 있다.

사이즈 95, 100, 105, 110 기능성 기모 티셔츠 3종 ₩39,800 (택배비 3,000원 구매자 부담) www.style49.com

입금계좌 :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 이선희센스스포츠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카드결제 가능